

# 주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에 있어 한국관련 목록레코드 비교 분석\*

- 유럽 및 남미지역 12개국을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Analysis of Cataloging Record Related to Korea in the National Libraries of the Main Developing Countries

- Focused on 12 Europe and South America Countries -

김 정 현(Jeong-Hyen K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2. 국가도서관의 목록 특성           |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III. 유럽 및 남미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 |
| 2. 연구대상 및 방법             | 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 분석       |
| 3. 선행연구                  | 1.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현황         |
| II. 유럽 및 남미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 | 2. 한국관련 레코드의 표기 특성        |
| 가도서관의 현황 및 목록 특성 분석      | IV. 결론                    |
| 1. 국가도서관의 현황             |                           |

### 초 록

이 연구는 유럽 및 남미지역 주요 12개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 목록레코드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과 특성, 주제명표목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해당 국가도서관 자료의 0.01%도 되지 않는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이 한국어 자료를 로마자로 번자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 국가도서관을 제외하고 한국어 자료에 대해 원어를 표기하지 않으며, 한국어 검색이 불가능 하다. 셋째, 한국관련 레코드는 대개 사회과학과 역사지리 분야가 5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주제 분포에서는 '역사', '정치', '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는 대부분이 가라테와 구분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태권도를 가라테로 인식하고 있다. 독도는 8개 국가도서관이 한국이라는 지리 한정어와 함께 표기하고 있으며, 동해는 7개 국가도서관이 일본어로 표기하고 있다.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

키워드: 개발도상국도서관, 국가도서관, 한국주제명, 주제명표목표 유럽지역도서관, 남미지역도서관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records related to Korea shown in the cataloging records of national libraries of the main 12 developing countries in Europe and South Americ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Korea-related records in most national libraries are very poor and under 0.01% of the library. Second, Korean materials usually write Korean in Roman characters except for National Library of Armenia, but there are not marked with the original Korean language and unfeasible Hangeul search. Third, on investigation of the subject distribution in sub criteria of Korea-related records, subject related to history, politics, and economy is largely shown in the highest rate. Fifth, among the Korea-related subject heading, Taekwondo is marked with distinction from Karate in most libraries except for National Library of Argentina. Dokdo is marked with the geographical name of 'Korea' in 8 national libraries and East Sea (Donghae) already is marked with 'Sea of Japan' in 7 national libraries. Amnokgang, Dumangang, and Baekdusan-related records did not search at all in most national libraries.

Keywords: Developing country library, National library, Korean subject heading, Subject headings, European library, South America library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2534)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jhgim@jnu.ac.kr)

•논문접수: 2016년 5월 16일 •최초심사: 2016년 5월 28일 •게재확정: 2016년 6월 20일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1-25,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6.1]

## I. 서론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금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K팝, K뷰티, K패션 등에 열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들이 우리의 기대와 달리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서관의 목록을 활용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각국의 도서관 서가에 한국관련 장서가 많을수록, 각국의 도서관 목록에 한국관련 레코드가 많을수록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기회가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정보에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무질서하고 범람하는 정보 가운데서도 가장 학술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는 자기 나라의 대표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국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의 정보가 중요한 만큼 이러한 정보 가운데 한국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지거나 왜곡된 정보가 있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동안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일부 선진국이나 영어권 중심의 도서관에 한정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유대관계를 생각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한국의 문헌정보학 관련 연구에서도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서 연구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유럽 및 남미지역 주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소장 현황 및 주제영역별 특성, 한국입장에서 표기에 관심이 높은 일부 레코드의 주제명을 중심으로 그 표기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유럽 및 남미지역 주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 온라인열람목록(OPAC)을 통해서 한국관련 목록레코드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유럽 및 남미지역 주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은 편의상 개발도상국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G20 개발도상국을 비롯하여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비교적 OPAC 접속이 용이한 12개국의 국가도서관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12개 국가도서관은 유럽의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국가도서관, 남미의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의 국가도서관이다.

한편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럽 및 남미지역 주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 12개관에 대한 자료현황과 목록 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각 국가도서관의 OPAC을 직접 조사하여 한국관련 레코드를 주제별로 구분한 다음, 대략적인 레코드 수, 주제별 분포, 그리고 도서관간의 한국관련 레코드 특성을 분석한다. 여기서 한국관련 레코드는 한국에서 발행되었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한국에 관한 자료를 의미한다.

셋째, 한국관련 목록레코드는 각 도서관의 OPAC 확장검색에서 키워드 또는 주제명의 불리언 조합을 통해 조사하며, ‘태권도’나 ‘김치’와 같이 널리 알려진 일부 키워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Korea’ 또는 ‘Korean’(이에 상응하는 각국의 언어)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레코드로 한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코드의 표제나 주제명 등에 이에 상응하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부 레코드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가 대부분 포함되므로 주제명의 특성이나 대략적인 레코드 분포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주제명 가운데 특히 각국의 도서관마다 다르게 표기될 수 있거나, 지리 한정어를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태권도’, ‘김치’, ‘독도’, ‘동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등 의 7개 용어를 대상으로 주제명의 표기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 3. 선행연구

해외 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나 주제명표목표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김영귀(1997), 윤정옥(2001), Kim(1989), 김정현과 문지현(2009), 김정현(2010)은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인 LCSH를 대상으로 한국관련 주제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김정현(2013)은 주요 국가 주제명표목표의 한국 국경관련 주제명, 문지현과 김정현(2011a; 2011b) 및 문지현(2012)은 중국과 일본의 주제명표목표에 있어 한국 관련 주제명을 비교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2010)에서는 주요 국가의 국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주제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남태우 등(2008)은 자료조직 측면에서 독도표기 문제, 정연경(2010)은 정보 접근점으로 LC 주제명 표목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관련 주제명의 연구는 주로 LCSH에 한정되어 있고 최근 들어 문지현과 김정현을 중심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주제명표목표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WorldCat에 수록된 한국관련 레코드의 특성을 분석한 윤정옥(2012; 2013), 주요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관련 주제명을 분석한 김정현(2011), 주요 유럽 대학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를 분석한 김정현(2014),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의 한국관

런 레코드를 분석한 김정현(201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를 조사하여 한국관련 레코드에 대한 분석은 이 연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 II. 유럽 및 남미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현황 및 목록 특성 분석

### 1. 국가도서관의 현황

주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 현황은 목록레코드의 규모 즉, 자료 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해당 국가도서관의 홈페이지나 OPAC을 직접 탐색하여 조사하였으며, 자료 수에는 일반 단행본을 비롯하여 모든 유형의 자료가 모두 포함되었다. OPAC에서 주제명(주제명이 없는 경우 키워드) 가운데 ‘Korea’와 ‘Korean’이 포함된 모든 레코드를 합산하였으며, 주제명에 이들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Taekwondo’(태권도)나 ‘Kimchi’(김치)와 같이 한국관련 주제명이 뚜렷한 것은 가능한 포함시켰다. 물론 이들 용어는 모두 해당 국가의 언어로 탐색하였다.

<표 1>은 각국의 국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체 자료 수와 한국관련 자료 현황을 나타

<표 1> 유럽 및 남미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자료 현황

국가도서관	구분	자료 수(건)	한국관련 자료 수(%)	일본관련 자료 수(%)
루마니아 국가도서관		1,300만(879만 장서)	734(0.006)	1,433(0.011)
리투아니아 국가도서관		662만	483(0.007)	996(0.015)
벨라루스 국가도서관		900만	1,288(0.014)	1,719(0.019)
불가리아 국가도서관		775만	612(0.008)	1,832(0.024)
아르메니아 국가도서관		680만	389(0.006)	1,606(0.024)
우크라이나 국가도서관		1,500만(1,350만 장서)	356(0.002)	644(0.004)
베네수엘라 국가도서관		713만	555(0.008)	753(0.011)
브라질 국가도서관		900만	533(0.006)	2,225(0.025)
아르헨티나 국가도서관		200만(90만 장서)	923(0.046)	1,492(0.075)
코스타리카 국가도서관		70만	570(0.081)	795(0.114)
콜롬비아 국가도서관		200만	731(0.037)	1,029(0.051)
페루 국가도서관		700만(350만 장서)	579(0.008)	1,310(0.019)

\*2016년 2월 15일 기준임

낸 것이며,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일본관련 자료 수도 함께 나타내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관련 자료규모는 벨라루스 국가도서관이 1,288건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아르헨티나 국가도서관이 923건으로 나타난 반면, 500건 미만의 국가도서관도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의 3개관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관련 자료는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서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2~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와 브라질의 경우 4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당 국가도서관의 자료 대비 한국관련 자료 수는 코스타리카가 0.081%, 아르헨티나 0.046%, 벨라루스 0.014%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서 0.01% 미만으로 나타났다.

## 2. 국가도서관의 목록 특성

각국의 국가도서관 OPAC 구조는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루마니아 국가도서관의 OPAC을 예시로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1>은 루마니아 국가도서관 OPAC의 초기 검색화면에서, 기본검색인 ‘Căutare de bază’와 확장검색인 ‘Căutarea avansată’ 가운데 확장검색을 선택하여 나타난 입력화면이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러한 2가지 메뉴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매뉴용어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에서 ‘Căutarea avansată’(확장검색)을 선택한 다음 커서를 이동하면 ‘Toate câmpurile’(전체), ‘Titlu’(표제), ‘Autor’(저자), ‘Subiect’(주제명), ‘Subiect geografic’(지리주제명) 등의 선택요소가 나타난다. 이 가운데 ‘Toate câmpurile’를 선택한 후, ‘Coreea’(한국)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려는 화면이다. 대부분의 국가도서관 OPAC에서 이와 같은 확장검색을 통해 저자, 표제, 주제명, 키워드 등이 검색요소로 포함되어 있으며, 도서관에 따라서는 이외에도 분류기호나 자관의 제어번호, 통일표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되어 있다. 여기서 주제명은 일반 주제명만 기술되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일

Câmp de căutare	Introduceți termenul sau sintagma	Cuvinte adiacente?	Nr. de înregistrări
Toate câmpurile	Coreea	<input checked="" type="radio"/> Nu <input type="radio"/> Da	
Titlu		<input checked="" type="radio"/> Nu <input type="radio"/> Da	
Autor		<input checked="" type="radio"/> Nu <input type="radio"/> Da	
Subiect		<input checked="" type="radio"/> Nu <input type="radio"/> Da	
Subiect geografic		<input checked="" type="radio"/> Nu <input type="radio"/> Da	
Localitatea	Catalog BNR (după anul 1993)		
Ediția			
An			
Titlu serie/colecție			
ISSN			
ISBN			
Număr de sistem			
Barcode			
Clasificare zecimală			
Baze			

**Căutarea folosind filtrele:**

Din anul:  Până în anul:  aaaa (Măzică) ? pentru trunchiere în cazul în care nu folosiți de la până la

Format (tipul documentului):  Localizare (ex. RNP, Băltyanescu):

<그림 1> 루마니아 국가도서관의 OPAC 초기 검색화면

반 주제명과 함께 자관에서 통제된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다.

레코드의 입력체계는 유럽지역의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 국가도서관이 UNIMARC 형식을 적용하고, 벨라루스와 불가리아가 UNIMARC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BELMARC과 COMARC 형식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콜롬비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남미지역 국가도서관이 MARC 21 형식을 적용하고 있다. 분류법의 경우도 대체로 유럽지역 국가도서관이 UDC, 남미지역이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 DDC를 적용하고 있다.

주제명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해당 국가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나 전거표목을 적용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에서 반입된 레코드의 경우 이미 기술되어 있는 주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제명은 자국의 언어와 함께 공용어인 영어나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벨라루스 국가도서관은 주제명을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의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 Ⅲ. 유럽 및 남미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 분석

#### 1.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현황

목록레코드의 주제영역은 <표 2>와 같이 철학종교, 사회과학, 과학기술,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한 다음 다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여기서 세부항목은 LCSH에서 추출한 한국관련 주제명을 유사한 주제끼리 군집화 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주제세목, 지리세목, 시대세목, 형식세목들이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김정현 2011, 146). 이러한 세부항목이 대부분의 국가도서관 목록레코드에서 자주 등장하는 실제적인 주제명이다. 각 도서관의 주제명은 언어가 다른 경우 표기방식이 다르며, 같은 언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체로 이러한 범주에서 주제명이 적용되고 있다.

각 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는 확장검색에서 키워드 또는 주제명으로 검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키워드나 주제명간에 불리언조합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한국관련 레코드의 구체적인 주제별 분포 현황과 해당 주제명의 레코드 수는 <표 3>과 같다. 각 도서관의 주제명표목은 <표 2>에 제시한 세부항목이 결합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산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즉, 각 도서관의 언어 구조에 따라 동일한 주제명이라도 한국을 나타내는 지리세목이 주제명 첫머리에 오는 경우도 있고 끝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김치나 태권도와 같은 특정 주제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Korea' 또는 'Korean'이 주제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이다. <표 3>에서

<표 2> 목록레코드의 주제영역별 구분

주제영역	세부항목
철학종교	① 철학, 윤리, 유학, ②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③ 종교, 신학, 기독교, 불교
사회과학	① 사회일반, 언론, 인구, ② 경제, 무역, 산업, ③ 문화, 유적지, ④ 정치, 통일문제, 핵문제, 군사분계선, ⑤ 외교, 국제관계, ⑥ 법률, 인권, ⑦교육, ⑧ 국방, ⑨ 한국인, 민족, ⑩ 여성
과학기술	① 자연과학, ② 기술과학, ③ 의학, 병리학, ④ 농업, 수산업, ⑤ 음식, 요리, 김치
예 술	① 예술일반, ② 음악, ③ 미술, ④ 건축, ⑤ 조각, ⑥ 영화, TV드라마, ⑦ 도자기, ⑧ 태권도, 스포츠, 축구, 2002월드컵
언 어	① 언어
문 학	① 문학일반, ② 시, ③ 소설, ④ 희곡, ⑤ 수필, ⑥ 산문, ⑦ 풍자
역사지리	① 역사, 전기, ② 한국전쟁, ③ 지리, 지도, 국경, 영토, 산, 강, ④ 여행, 안내

특정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표 2>의 세부항목별로 주제명과 레코드수를 모두 조사하여 구분하였지만 <표 3>에서는 주제영역까지만 나타내었다. 또한 각 도서관의 한국, 남한, 북한관련 레코드도 조사하여 함께 나타내었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각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 특성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가. 루마니아 국가도서관

루마니아 국가도서관(Biblioteca Națională a României)은 1859년에 설립되어 루마니아의 Bucharest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30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06%인 734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011%인 1,433건으로 거의 2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70건, 북한 58건으로 남북한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있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247건(33.7%), 역사지리 분야가 144건(19.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철학·종교 분야의 레코드가 27건(3.7%)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역사’가 104건(14.2%)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시(79건)>문화(62)>경제(47)>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역사가 25건(12.4%)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문화(19)>경제(17)>정치(14)>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은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명은 ‘Coreea’, 남한은 ‘Coreea de Sud’, 북한은 ‘Coreea de Nord’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2호)

<표 3> 유럽 및 남미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

주제영역 국가도서관		철학 종교	사회 과학	과학 기술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기타	합계	한국	남한	북한
루마 니아	주제명수 (%)	10 (5.0)	78 (38.8)	11 (5.5)	30 (14.9)	12 (6.0)	23 (11.4)	37 (18.4)		201 (100%)			
	레코드수 (%)	27 (3.7)	247 (33.7)	30 (4.1)	109 (14.9)	35 (4.8)	122 (16.6)	144 (19.6)	12 (1.6)	734 (100%)	606 (82.6)	70 (9.5)	58 (7.9)
리투 아니아	주제명수 (%)	28 (7.6)	141 (38.2)	7 (1.9)	106 (28.7)	18 (4.9)	31 (8.4)	38 (10.3)		369 (100%)			
	레코드수 (%)	32 (6.6)	175 (36.2)	11 (2.3)	126 (26.1)	29 (6.0)	52 (10.8)	50 (10.4)	8 (1.6)	483 (100%)	314 (65.0)	136 (28.2)	33 (6.8)
벨라 루스	주제명수 (%)	7 (8.6)	31 (38.3)	8 (9.9)	17 (21.0)	2 (2.4)	5 (6.2)	11 (13.6)		81 (100%)			
	레코드수 (%)	35 (2.7)	552 (42.9)	16 (1.3)	165 (12.8)	195 (15.1)	52 (4.0)	264 (20.5)	9 (0.7)	1,288 (100%)	729 (56.6)	307 (23.8)	252 (19.6)
불가 리아	주제명수 (%)	14 (4.3)	151 (46.2)	14 (4.3)	63 (19.2)	23 (7.0)	16 (4.9)	46 (14.1)		327 (100%)			
	레코드수 (%)	18 (3.0)	333 (54.4)	14 (2.3)	89 (14.5)	32 (5.2)	18 (2.9)	101 (16.5)	7 (1.2)	612 (100%)	418 (68.3)	120 (19.6)	74 (12.1)
아르 메니아	주제명수 (%)	6 (3.0)	84 (42.2)	12 (6.0)	18 (9.1)	6 (3.0)	26 (13.1)	47 (23.6)		199 (100%)			
	레코드수 (%)	6 (1.5)	154 (39.6)	14 (3.6)	22 (5.7)	15 (3.9)	59 (15.1)	112 (28.8)	7 (1.8)	389 (100%)	282 (72.5)	69 (17.7)	38 (9.8)
우크 라이나	주제명수 (%)	7 (7.7)	40 (43.9)	6 (6.6)	20 (22.0)	2 (2.2)	5 (5.5)	11 (12.1)		91 (100%)			
	레코드수 (%)	19 (5.3)	154 (43.3)	8 (2.3)	56 (15.7)	40 (11.2)	19 (5.3)	53 (14.9)	7 (2.0)	356 (100%)	356 (100)	0 (0.0)	0 (0.0)
베네 수엘라	주제명수 (%)	4 (3.1)	62 (48.4)	4 (3.1)	24 (18.8)	3 (2.4)	4 (3.1)	27 (21.1)		128 (100%)			
	레코드수 (%)	8 (1.4)	156 (28.1)	5 (0.9)	168 (30.3)	136 (24.5)	23 (4.2)	51 (9.2)	8 (1.4)	555 (100%)	489 (88.1)	37 (6.7)	29 (5.2)
브라질	주제명수 (%)	8 (3.9)	69 (33.7)	7 (3.4)	45 (21.9)	7 (3.4)	16 (7.8)	53 (25.9)		205 (100%)			
	레코드수 (%)	13 (2.4)	204 (38.3)	22 (4.1)	105 (19.7)	11 (2.1)	56 (10.5)	115 (21.6)	7 (1.3)	533 (100%)	310 (58.1)	173 (32.5)	50 (9.4)
아르 헨티나	주제명수 (%)	8 (3.7)	102 (46.8)	14 (6.4)	28 (12.8)	12 (5.5)	15 (6.9)	39 (17.9)		218 (100%)			
	레코드수 (%)	12 (1.3)	451 (48.9)	25 (2.7)	111 (12.0)	47 (5.1)	43 (4.6)	224 (24.3)	10 (1.1)	923 (100%)	775 (84.0)	74 (8.0)	74 (8.0)
코스 타리카	주제명수 (%)	6 (3.4)	94 (53.7)	8 (4.6)	32 (18.3)	5 (2.9)	7 (4.0)	23 (13.1)		175 (100%)			
	레코드수 (%)	16 (2.8)	231 (40.5)	13 (2.3)	120 (21.1)	11 (1.9)	36 (6.3)	135 (23.7)	8 (1.4)	570 (100%)	336 (58.9)	157 (27.6)	77 (13.5)
콜롬 비아	주제명수 (%)	9 (4.0)	125 (54.8)	12 (5.2)	27 (11.8)	2 (0.9)	9 (4.0)	44 (19.3)		228 (100%)			
	레코드수 (%)	28 (3.8)	203 (27.8)	320 (43.8)	52 (7.1)	6 (0.8)	19 (2.6)	98 (13.4)	5 (0.7)	731 (100%)	642 (87.8)	40 (5.5)	49 (6.7)
페루	주제명수 (%)	14 (4.4)	173 (53.9)	11 (3.4)	47 (14.6)	8 (2.5)	8 (2.5)	60 (18.7)		321 (100%)			
	레코드수 (%)	55 (9.5)	286 (49.4)	12 (2.1)	61 (10.5)	13 (2.2)	19 (3.3)	124 (21.4)	9 (1.6)	579 (100%)	405 (69.9)	63 (10.9)	111 (17.2)

\*2016년 2월 15일 기준임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22건이며, 주제명은 ‘Taekwondo’로 6개와 ‘Poom-Se’로 1개가 부여되어 있고 나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가라테(Karate)는 103건이 검색되며, 태권도와 가라테를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7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Coreea’와 같이 일반적인 주제명으로 나타나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16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Dokdo (Corea de sud, insule)’ 또는 ‘Dokdo, insulă (Coreea)’와 같이 표기되어 있으며, 일부 레코드는 ‘Takeshima, insulă (Coreea)’라는 주제명이 함께 부여되어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3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 나. 리투아니아 국가도서관

리투아니아 국가도서관(Lietuvos Nacionalinė Martyno Mažvydo Biblioteka)은 1919년에 설립되어 리투아니아의 Kaunas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662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07%인 483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015%인 996건으로 2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136건, 북한 33건이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175건(36.2%), 예술 분야가 126건(26.1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야의 레코드가 11건(2.3%)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경제’가 40건(8.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35건)>사회(34)>문화(31)>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경제 31건(8.4%)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사회(28)>정치(25)>문화(24)>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은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명은 ‘Korėja’, 남한은 ‘Korėja, Pietų’, 북한은 ‘Korėja, Šiaurės’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3건이며, 이 가운데 1건은 주제명이 ‘Tae kwon do’, 1건은 표제 키워드가 ‘Taekwondo’만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Karaté’가 부여되어 있다. 가라테는 23건이 검색된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3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그림 2>와 같이 ‘Kimchi’로 나타나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2건씩 검색되며, 이 가운데 1건의 주제명이 ‘Dokdo salos (Korėja)’로 표기되어 있다. ‘동해’ 관련 레코드는 2건이 되며, 주제명은 ‘일본해’라는 의미의 ‘Japonijos jūra’로 표기되어 있다. ‘압록강’관련 레코드는 표제 키워드 ‘Yalu’로 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백두산’관련 레코드는 표제 키워드 ‘Mt. Paektu’로 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b>Autorius:</b>	<b>Yoon, Sook-ja</b>
<b>Antraštė:</b>	<b>Good morning, kimchi! : [forty different kinds of traditional &amp; fusion kimchi recipes] / by Sook-ja Yoon ; translated by Young-hie Han</b>
<b>Išleidimo duomenys:</b>	<b>Elizabeth (N.J.) : Hollym, 2005</b>
<b>Apimtis:</b>	<b>128 p. : iliustr., portr.</b>
<b>Pastabos:</b>	<b>Su bibliogr. ir r-kle</b>
<b>ISSN, ISBN, ISMN:</b>	<b>1-56591-216-0</b>
<b>UDK:</b>	<b>641.568(519)(083.12)</b>
<b>Tema:</b>	<b>Kimchi Kulinarija, korėjiečių</b>
<b>Šifras:</b>	<b>Bendrieji fondai : 3-07-6616</b>

〈그림 2〉 리투아니아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 다. 벨라루스 국가도서관

벨라루스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Belarus)은 1922년에 설립되어 벨라루스의 Minsk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90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14%인 1,288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019%인 1,719건으로 1.3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307건, 북한 252건이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552건(42.9%), 역사지리 분야가 264건(20.5%)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야의 레코드가 16건(1.3%)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언어’가 195건(15.1%)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174건)>경제(103)>외교(85)>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어별 자료구분에서 한국어자료를 구분하고 있지만 한국어 원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은 되지 않으며,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다. 한국의 국가명은 ‘Карэя’, 남한은 ‘Карэя, Рэспубліка’, 북한은 ‘Карэй ская Народна-Дэмакратычная Рэспубліка’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49건이며, 주제명은 모두 ‘Таэквондо’로 부여되어 있다. 가라데는 155건이 검색되며, 태권도와 가라데를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다. 김치는 표제 키워드 ‘kimchi’로 1건이 검색되며 ‘Карэя’와 같이 일반적인 주제명으로 나타나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표제 키워드 ‘Dokdo’로 8건, ‘Takeshima’로 3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그림 3>에 서와 같이 모두 ‘리앙쿠르 록 (일본해)’이라는 의미의 ‘Ліанкур, астравы (Японскае мора)’가 부여되어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는 1건도 검색되지 않으며, ‘일본해’라는 의미의 벨라루스어 ‘ЯПОНСКАЕ МОРА’로 17건, 러시아어 ‘ЯПОНСКОЕ МОРЕ’로 22건이 검색된다.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그림 3〉 벨라루스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 라. 불가리아 국가도서관

불가리아 국가도서관(SS. Cyril and Methodius National Library)은 1878년에 설립되어 불가리아의 Sofia에 위치하고 있으며, 73개 도서관으로 이뤄져있다. 현재 775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08%인 612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024%인 1,832건으로 3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120건, 북한 74건으로 남북한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있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333건(54.47%), 역사지리 분야가 101건(16.5%)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야의 레코드가 14건(2.3%)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역사’가 76건(9.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제(73건)>외교(70)>문화(68)>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경제가 38건(11.6%)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문화(32)>정치(30)>역사(28)>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은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명은 ‘Korea’, 남한은 ‘Южна Корея’, 북한은 ‘Северна Корея’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Таекуондо’, ‘Тай куон-до’, ‘Taekwon-do’ 등으로 10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태권도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Бой ни изкуства, източни - Корея’(Martial arts, oriental - Korea)와 같은 일반적인 주제명으로 부여되어 있다. 가라테 관련 레코드는 37건이 검색되며, 태권도와 가라테를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Южна Корея’와 같이 일반적인 주제명으로 나타나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3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Острови - Южна Корея - история’(Islands - South Korea - History)와 같이 독도에 대한 직접적

인 표현 대신에 일반적인 주제명으로 부여되어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Японско море - Карты’(Sea of Japan - Maps)와 같이 나타나 있다.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 마. 아르메니아 국가도서관

아르메니아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rmenia)은 1832년에 설립되어 아르메니아의 Yerevan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68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06%인 389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024%인 1,606건으로 4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69건, 북한 38건이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154건(39.6%), 역사지리 분야가 112건(28.8%)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철학·종교 분야의 레코드가 6건(1.5%)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역사’가 67건(17.2%)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38건)>문학(34)>경제(26)>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역사가 20건(10.1%)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문학(19)>외교(16)>지리(15)>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번자표기는 하지 않으며, 원어 그대로 표기되어 있고, 한글 검색이 가능하다. 한국의 국가명은 ‘Корея’, 남한은 ‘Корея Южная’, 북한은 ‘Северная Корея’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1건이며, 주제명은 태권도와 무관한 ‘Fiction’으로 부여되어 있다. 가라데(Karaté)는 7건이 검색된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8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Tok Island (Korea)’ 4건, ‘Dokdo, Korea (South)’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제 키워드 Takeshima(竹島)이 1건 검색되며, 이의 주제명은 ‘Takeshima -- Japan’으로 나타나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Japan, Sea of’으로 나타나 있다. ‘압록강’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Yalu’로 2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김치, 백두산,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 바. 우크라이나 국가도서관

우크라이나 국가도서관(Vernadsky National Library of Ukraine)은 1918년에 설립되어 우크라이나의 Kiev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35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02인 356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004%인 644건으로 1.8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154건(43.3%), 예술 분야가 56건(15.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야의 레코드가 8건(2.3%)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문화’가 51건(14.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언어(40건)>역사(33)>경제(32)>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사회가 13건(14.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문화(8)>예술(6)>역사(5)>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어별 자료구분에서 한국어자료를 구분하고 있지만 한국어 원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은 되지 않으며,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다. 한국의 국가명은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로 표기하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4건이며, 주제명은 ‘The national kinds of struggle’와 같은 일반적인 주제명으로 나타나 있다. 가라테(Karate)는 2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The national kinds of struggle’와 ‘Japanese struggle (jiu-jitsu, judo)’을 부여하고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2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독도와 무관한 일반적인 용어로 나타나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4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동해와 무관한 일반적인 용어로 나타나 있다.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 사. 베네수엘라 국가도서관

베네수엘라 국가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e Venezuela)은 1833년에 설립되어 베네수엘라의 Caracas에 위치하고 있으며, 73개 도서관으로 이뤄져있다. 현재 713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08%인 555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011%인 753건으로 1.3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37건, 북한 29건으로 남북한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있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3>과 같으며, 예술 분야의 레코드가 168건(30.3%), 사회과학 분야가 156건(28.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야의 레코드가 5건(0.9%)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언어’가 136건(24.5%)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음악(122건)>문화(48)>역사(36)>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문화가 21건(16.4%)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16)>정치(11)>사회(10)>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어별 자료구분에서 한국어자료를 구분하고 있지만 한국어 원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은 되지 않으며,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다. 한국의 국가명은

‘Corea’, 남한은 ‘Corea del sur’ 또는 ‘Corea (Sur)’, 북한은 ‘Corea del norte’ 또는 ‘Corea (Norte)’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3건이며, 주제명을 <그림 4>에서와 같이 ‘Karate’로 부여하고 있다. 가라데(Karate) 관련 레코드는 81건이 검색된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Corea del sur -- Historia’와 같은 일반주제명이 부여되어 있다. 김치, 동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그림 4> 베네수엘라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 아. 브라질 국가도서관

브라질 국가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o Brasil)은 1810년에 설립되어 브라질의 Rio de Janeiro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90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최대 도서관이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06%인 533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025%인 2,225건으로 4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173건, 북한이 50건이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204건(38.3%), 역사지리 분야가 115건(21.6%)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언어 분야의 레코드가 11건(2.1%)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역사’가 48건(9.0%)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46건)>문화(45)>문학(42)>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문화가 21건(10.2%)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20)>정치(19)>한국전쟁(13)>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어별 자료구분에서 한국어자료를 구분하고 있지만 한국어 원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은 되지 않으며,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다. 한국의 국가명은 ‘Coréia’, 남한은 ‘Coréia (Sul)’, 북한은 ‘Coréia (Norte)’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11건이며, 이 가운데 주제명이 ‘Tae Kwon do’로 6개, ‘Karatê’로 4개가 부여되어 있고 나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가라테(Karate)관련 레코드는 95건이 검색되며, 일부 레코드는 표제 키워드로 태권도만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제명이 ‘Karatê’로 부여되어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Culinária coreana’와 같이 일반적인 주제명으로 나타나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4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2건이 ‘Tok, Ilha (Coréia) - História - Fontes’와 같이 표기되어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2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그림 5>에서와 같이 ‘일본해 (일본과 한국)’이라는 의미의 ‘Japão, Mar do (Japão e Coréia)’로 나타나 있다. ‘압록강’관련 레코드는 표제 키워드 ‘Yalu’와 ‘Yalu rive’로 3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백두산과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Classificação Dewey	912.196454
Edição	22
Localização	Cartografia - Cartografia/AT.014,01,065
Título	<b>East Sea in old western maps : with emphasis on the 17-18th centuries / [writers Ki-suk Lee ... [et al.]].</b>
Imprenta	Seoul, Coréia : Society for East Sea :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2007.
Desc. física	193p. : mapas col. ; 30 cm.
Assuntos	1. Águas territoriais - Japão, Mar do (Japão e Coréia) - Mapas ⓘ 2. Nomes geográficos - Japão, Mar do (Japão e Coréia) - Mapas ⓘ 3. Japão, Mar do (Japão e Coréia) - Mapas ⓘ
Ent. sec.	I. Yi, Ki-sók, 1940- ⓘ II. Society for East Sea (Coréia (Sul)) ⓘ III.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

<그림 5> 브라질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 자. 아르헨티나 국가도서관

아르헨티나 국가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e la República Argentina)은 1810년에 설립되어 아르헨티나의 Buenos Aires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20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46%인 923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075%인 1,492건으로 1.6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과 북한 관련 레코드가 각각 74건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451건(48.9%), 역사지리 분야가 224건(24.3%)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철학·종교 분야의 레코드가 12건(1.3150%)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역사’가 150건(16.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122건)>경제(89)>문화(80)>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정치가 26건(11.9%)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22)>경제(18)>문화(17)>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영어로 번역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은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명은 'Corea', 남한은 'Corea del Sur', 북한은 'Corea del Norte'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22건이며, 대부분 주제명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3건은 'Karate'로 주제명이 부여된 것이 3건이 있다. 가라테(Karate)는 25건이 검색된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표제 키워드 'Kimchi'가 1건 검색된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7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이 'DOKDO [COREA]'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 레코드가 1건 있고 나머지는 주제명이 나타나 있지 않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6건이 검색되며, 이 가운데 2건의 주제명이 'MAR DEL JAPON'와 같이 나타나 있고 나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 차. 코스타리카 국가도서관

코스타리카 국가도서관(Biblioteca Nacional "Miguel Obregón Lizano")은 1888년에 설립되어 코스타리카의 San Jose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7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81%인 570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114%인 795건으로 약 1.4배 많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157건, 북한 77건이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231건(40.5%), 역사·지리 분야가 135건(23.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언어 분야의 레코드가 11건(1.9%)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역사'가 105건(18.4%)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스포츠(85건)>정치(63)>경제(4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정치가 20건(11.4%)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문화(19)>경제(18)>역사(1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은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명은 'COREA', 남한은 'COREA DEL SUR', 북한은 'COREA DEL NORTE'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10건이며, 주제명은 모두 'TAE KWON DO'로 부여되어 있다. 가라테(Karate)는 37건이 검색되며, 태권도와 가라테를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표제 키워드 'Kimchi'로 2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COREA - CIVILIZACION'와 같이 일반적인 주제명으로 나타나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3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DOKDO (COREA)'와 같이 표기되어 있다. '압록강'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Yalu'로 2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동해, 백두산,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 카. 콜롬비아 국가도서관

콜롬비아 국가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e Colombia)은 1777년에 설립되어 콜롬비아의 Bogotá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20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37%인 731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051%인 1,029건으로 한국의 1.4배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40건, 북한 49건으로 남북한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있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3>과 같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레코드가 320건(43.8%), 사회과학 분야가 203건(27.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언어 분야의 레코드가 6건(0.87%)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기술과학'이 307건(42.0%)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제(57건)>역사(55)>정치(5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기술과학 분야의 307건은 모두 삼성전자 관련 자료이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경제가 38건(16.7%)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29)>역사(22)>사회(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은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명은 'Corea', 남한은 'Corea del Sur', 북한은 'Corea del Norte'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Taekwondo'로 3건 검색되며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가라데(Karate)는 6건이 검색된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Dokdo (Isla, Corea)'와 같이 표기되어 있다. 김치, 동해,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 타. 페루 국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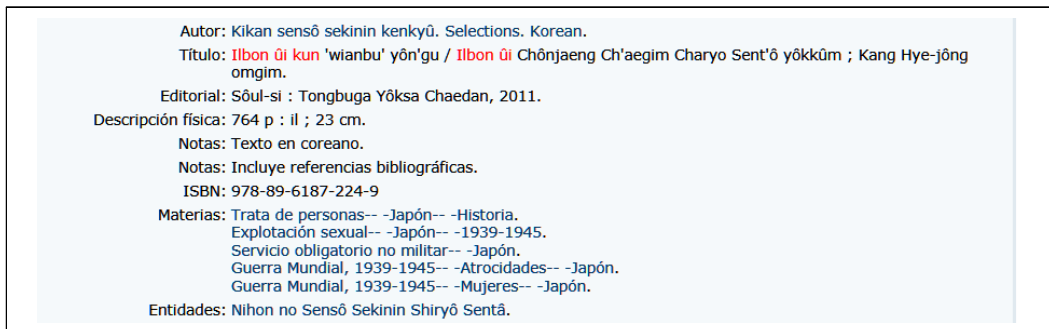
페루 국가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el Perú)은 1821년에 설립되어 페루의 Lima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70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08%인 579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019%인 1,310건으로 2.2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63건, 북한 111건으로 남한보다 북한 관련 레코드가 많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3>과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286건(49.4%), 역사지리 분야가 124건(21.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야의 레코드가 12건(2.1%)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정치’가 102건(17.6%)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98건)>경제(66)>철학(52)>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정치가 47건(14.6%)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43)>경제(39)>문화(27)>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그림 6>에서와 같이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은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명은 ‘Corea’, 남한은 ‘Corea del Sur’, 북한은 ‘Corea del Norte’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7건이며, 주제명은 모두 ‘Taekwon-Do’로 부여되어 있다. 가라테(Karate)는 28건이 검색되며, 태권도와 가라테를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Kimchi’로 나타나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2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Tok, Isla (Corea)’와 같이 표기되어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Japón, Mar de’로 표기되어 있다. ‘압록강’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Yalu’로 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백두산과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그림 6> 페루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 2. 한국관련 레코드의 표기 특성

앞절에서 분석한 유럽 및 남미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주제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가. 레코드의 일반적 특성

한국관련 레코드와 관련하여 주로 한국어의 표기방식과 검색의 유무, 한국어 자료의 언어 구분 여부 등을 중심으로 레코드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와 같이 분류법과 목록법은 조사 대상 유럽 국가도서관의 대부분이 UDC와 UNIMARC 계열,

남미 국가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DDC와 MARC 21 계열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도서관이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한국어 원어를 병기하여 한국어 검색이 가능한 도서관은 아르메니아 국가도서관뿐이다. 아르헨티나 국가도서관은 한국어 자료의 경우 번자표기 대신에 영어로 번역표기를 하고 있다. 자료의 언어구분에서 한국어를 구분하고 있는 도서관은 벨라루스 국가도서관을 비롯하여 5개관으로 나타났다.

<표 4> 유럽 및 남미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 특성

국가도서관	구분	분류법	목록법	번자표기	한국어 원어표기	언어구분 (한국어)	한국어 검색
루마니아		UDC	UNIMARC	○	x	x	x
리투아니아		UDC	UNIMARC	○	x	x	x
벨라루스		UUC	BELMARC	○	x	○	x
불가리아		UDC	COMARC	?	x	x	x
아르메니아		UDC	MARC 21	x	○	○	○
우크라이나		UDC	?	○	x	○	x
베네수엘라		DDC	MARC 21	○	x	○	x
브라질		DDC	MARC 21	○	x	○	x
아르헨티나		UDC	MARC 21	번역표기	x	x	x
코스타리카		DDC	MARC 21	○	x	x	x
콜롬비아		DDC	UNIMARC	○	x	x	x
페루		DDC	MARC 21	○	x	x	x

\*2016년 2월 15일 기준임

#### 나. 주요 주제명의 표기 특성

한국관련 주제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태권도, 김치, 독도, 동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등에 대해서 자료의 표제에 이들 용어가 표기된 내용과 이들에 대해 주제명은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이들 용어는 각국의 도서관마다 다르게 표기될 수 있으며, 또한 지명의 경우 지리 한정어를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주제명을 ‘Taekwondo’나 ‘Tae kwon do’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국가도서관의 레코드에는 표제 키워드에 ‘태권도’라는 키워드만 기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제명에는 ‘Karate’만 표기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와 브라질은 일부 레코드에서 ‘Taekwondo’와 ‘Karate’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표제 키워드 ‘Kimchi’로 검색이 되며, 주제명은 리투아니아와 페루 국가도서관에서 ‘Kimchi’로 표기되어 있고, 대부분이 ‘한국’ 또는 ‘한국-문화’와 같은 일반적인 주제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표 5> 주요 유럽 및 남미지역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에 있어 한국관련 주제명의 표기 현황

국가도서관	구분	태권도	김치	독도	동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루마 니아	표제 키워드	Taekwondo; TaeKwonDo Taekwon-Do; Tae-Kwon-Do	Kimchi	Dokdo; Takeshima;	East Sea		
	주제명	Taekwondo; Poom-Se	일반	Dokdo (Corea de sud, insule); Takeshima, insulă (Coreea)			
리투 아니아	표제 키워드	Taekwondo; Таэквондо	Kimchi	Tokdo Island; Dokdo	Sea of Japan	Yalu	Mt. Paektu
	주제명	Tae kwon do; Karatè	Kimchi	Dokdo salos (Korėja)	Japonijos jūra		
벨라 루스	표제 키워드	Taekwondo; ТАЭКВОНДО; ТАЭКВАНДО	Kimchi	Dokdo; Takeshima;			
	주제명	ТАЭКВОНДО; ТАЭКВАНДО	일반	Ліанкур, астравы (Японскае мора)	ЯПОНСКАЕ МОРА; ЯПОНСКОЕ МОРЕ		
불가 리아	표제 키워드	Таекуондо; Тай куон-до; Taekwon-do	Kimchi	Dokdo	East Sea		
	주제명	일반	일반	일반	Японско море		
아르 메니아	표제 키워드	Tae kwon do		Dokdo; Takeshima;	East Sea	Yalu	
	주제명	일반		Tok Island (Korea); Dokdo, Korea (South); Takeshima	Japan, Sea of		
우크 라이나	표제 키워드	Taekwondo	Kimchi	Dokdo	East Sea		
	주제명	일반		일반	일반		
베네 수엘라	표제 키워드	TaeKwonDo taekwondo		Dokdo			
	주제명	일반		일반			
브라질	표제 키워드	Taekwondo; Tae kwon do; Taekwon-Do; Tae-kwon-do;	Kimchi	Dokdo	East Sea	Yalu; Yalu river	
	주제명	Tae Kwon do; Karatè	일반	Tok, Ilha (Coréia)	Japão, Mar do (Japão e Coréia)		
아르 헨티나	표제 키워드	Taekwondo Taekwon-do; Tae Kwon Do;	Kimchi	Dokdo	East Sea		
	주제명	Karate		DOKDO [COREA]	MAR DEL JAPON		
코스 타리카	표제 키워드	Taekwondo; Taekwon-do;	Kimchi	Dokdo; Takeshima;		Yalu	
	주제명	TAE KWON DO	일반	DOKDO (COREA)			
콜롬 비아	표제 키워드	Taekwondo	Kimchi	Dokdo			
	주제명			Dokdo (Isla, Corea)			
페루	표제 키워드	Taekwondo; Tae Kwon Do; Taekwon - Do	Kimchi	Dokdo	East sea	Yalu	
	주제명	Taekwon-Do	Kimchi	Tok, Isla (Corea)	Japón, Mar de		

\*2016년 2월 15일 기준임

‘독도’관련 레코드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주제명을 ‘독도’ 또는 ‘독도섬’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Dokdo, Dokdo salos, Tokdo, Tok Island, Tok Ilha, Tok Isla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국가도서관은 ‘한국’이라는 의미의 지리 한정어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벨라루스 국가도서관은 표제 키워드가 독도나 다케시마에 관계없이 주제명은 모두 ‘Liancourt, Island (Sea of Japan)’이라는 의미의 ‘Ліанкур, астравы (Японскае мора)’와 같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독도를 한국이나 일본의 영토가 아닌 공해(일본해) 상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국가도서관은 독도라는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주제명으로 나타내고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표제 키워드 ‘East Sea’로 검색이 되며, 주제명은 ‘일본해’라는 의미의 ‘Japan, Sea of’, ‘Japonijos jūra’, ‘Japón, Mar de’, ‘Japão, Mar do’, ‘MAR DEL JAPON’, ‘ЯПОНСКАЕ МОРА’, ‘ЯПОНСКОЕ МОРЕ’, ‘Японско море’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브라질 국가도서관은 ‘일본과 한국’이라는 지리 한정어를 부가하여 ‘Japão, Mar do (Japão e Coréia)’와 같이 표기하고 있다. ‘압록강’관련 레코드는 ‘Yalu’나 ‘Yalu river’, ‘백두산’관련 레코드는 ‘Mt. Paektu’ 등과 같은 표제 키워드로 일부 국가에서 몇몇 레코드가 검색되며,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두만강’관련 레코드는 어느 도서관에서도 검색되지 않았다.

#### IV. 결론

유럽 및 남미지역 주요 12개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해당 국가도서관 자료의 0.01%도 되지 않는다. 즉, 벨라루스 국가도서관을 제외하고 모두 1,000권 미만이며,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의 3개관은 500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관련 자료는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대체로 2~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이 한국어 자료를 로마자로 번자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 국가도서관을 제외하고 한국어 자료에 대해 원어를 표기하지 않으며, 한국어 검색이 불가능 하다.

셋째, 한국관련 레코드는 대개 사회과학과 역사·지리 분야가 5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별 주제 분포에서는 ‘역사’, ‘정치’, ‘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넷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 김치, 동해, 독도,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등을 분석한 결과, 태권도는 대부분이 가라테와 구분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태권도를 가라테로 인식하고 있다.

독도는 8개 국가도서관이 한국이라는 지리 한정어와 함께 표기하고 있으며, 동해는 7개 국가도서관이 일본어로 표기하고 있다.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관련레코드는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관련 자료가 부족하거나 주제명의 표기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도서관의 자료 수집정책이나 목록조직과 관련이 있지만, 한국관련 자료가 널리 소장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 자료교환이나 기증 확대, 한국관련 자료의 외국어 출판 장려, 국내 출판물의 배포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우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주요 6개국 국립도서관 한국관련 주제어 자료집.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김영귀. 1997. LC Subject Headings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선정 및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대학편)』, 44: 237-272.
- 김정현. 2010.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147-169.
- 김정현. 2011.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 비교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8(3): 141-162.
- 김정현. 2013.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에 나타난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217-239.
- 김정현. 2014. 유럽 주요 대학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191-212.
- 김정현. 2015.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301-323.
- 김정현, 문지현. 2009. LCSH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49-68.
- 남태우 외. 2008. 자료조직 측면에서 독도표기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291-310.

- 문지현. 2012. 「中国分类主题词表」와 「国立国会図書館件名標目表」에 나타난 한국 관련 주제 명표목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247-267.
- 문지현, 김정현, 2011a. 「国立国会図書館件名標目表」의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47-267.
- 문지현, 김정현, 2011b. 「中国分类主题词表」의 한일 관련 주제명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331-350.
- 윤정옥. 2001.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의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비교 연구. 『도서관』, 56(1): 30-55.
- 윤정옥. 2012. 도서관 목록의 지식 확산 도구 역할에 관한 시론(試論).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123-141.
- 윤정옥. 2013. WorldCat 수록 한국 및 일본 관련 청소년 책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5-23.
- 정연경. 2010. 정보의 접근점으로서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 표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51-72.
- Kim, Joy. 1989.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 Related to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 [Unknown]: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Biblioteca Nacional “Miguel Obregón Lizano” <<http://www.sinabi.go.cr/>> [cited 2016. 2. 15].
- Biblioteca Nacional de Colombia <<http://www.bibliotecanacional.gov.co/>> [cited 2016. 2. 15].
- Biblioteca Nacional de la República Argentina <<http://www.bn.gov.ar/>> [cited 2016. 2. 15].
- Biblioteca Nacional de Venezuela <<http://www.bnv.gob.ve/>> [cited 2016. 2. 15].
- Biblioteca Nacional del Perú <<http://www.bnp.gob.pe/>> [cited 2016. 2. 15].
- Biblioteca Nacional do Brasil <<http://www.bn.br/>> [cited 2016. 2. 15].
- Biblioteca Națională a României <<http://www.bibnat.ro/>> [cited 2016. 2. 15].
- Lietuvos Nacionalinė Martyno Mažvydo Biblioteka <<http://www.lnb.lt/>> [cited 2016. 2. 15].
- National Library of Armenia <<http://www.nla.am/>> [cited 2016. 2. 15].
- National Library of Belarus <<http://www.nlb.by/>> [cited 2016. 2. 15].
- SS. Cyril and Methodius National Library <<http://www.nationallibrary.bg/>> [cited 2016. 2. 15].
- Vernadsky National Library of Ukraine <<http://nbuv.gov.ua/>> [cited 2016. 2. 15].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ung, Yeon Kyoung. 2010. "A Study on th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as an Information Access Poi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51-72.
- Kim, Jeong-Hyen. 2010. "A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LC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147-169.
- Kim, Jeong-Hyen.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the National Libraries OPAC of Majo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141-162.
- Kim, Jeong-Hyen. 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n Border in the Subject Headings of Major Count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217-239.
- Kim, Jeong-Hyen. 2014. "A Comparative Analysis of Cataloging Record Related to Korea in the Major Europea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191-212.
- Kim, Jeong-Hyen. 2015. "A Comparative Analysis of Cataloging Records Related to Korea in the Major Asia-Pacific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3): 301-323.
- Kim, Jeong-Hyen, Ji-Hyun Moon.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opical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LC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49-68.
- Kim, Young-Kuy. 1997. "The Study of Selection and Scription of Korean-Related Subject Headings in th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usan women's university Journal*, 44: 237-272.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2010. *Subject Headings on Korea*.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Moon, Ji-Hyun. 2012.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the CCT and NDL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121-141.



- Moon, Ji-Hyun, Jeong-Hyen Kim. 2011a.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China in the NDL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247-267.
- Moon, Ji-Hyun, Jeong-Hyen Kim. 2011. "A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Japan in the Chinese Classified Thesaurus," *Journal of Korea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42(3): 331-350
- Nam, Tae Woo etc. 2008. "A Study of the Dokdo Notation Problem in Terms of Library Materials Organ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291-310.
- Yoon, Cheong-Ok. 2001. "The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Japan in the LCSH," *Doseogan*, 56(1): 30-55.
- Yoon, Cheong-Ok. 2012. "A Discourse on the Role of Library Catalogs as a Tool for Knowledge Distribution: With a Focus on the WorldCa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123-141.
- Yoon, Cheong-Ok. 2013. "An Analysis on the Juvenile Books on Korea and Japan in the WorldCa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5-23.

